

광주시, 글로벌 첨단기술 투자유치 본격 시동

실리콘밸리 비즈니스포럼과 투자유치 라운드테이블 개최 협약 체결 차세대 배터리 기술 합작투자 유치·주요기술 협업사업 추진

광주시·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실리콘밸리 비즈니스포럼(SVBF)과 첨단기술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투자유치를 위해 손을 잡았다.

광주시와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6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실리콘밸리비즈니스포럼(SVBF)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실리콘밸리 투자유치 라운드테이블 개최를 위한 것이다.

협약식에는 이용섭 시장과 김진철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문국현 SVBF 공동회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오사마 하사나인 SVBF 공동회장은 코로나 19 때문에 미국에서 영상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5월 중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주제로 한 실리콘밸리 투자유치 라운드테이블 공동 개최 ▲광주경제자유구역이 스타트업과 주요 기업 간 협력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차세대 배터리 기술의 합작투자 유치 ▲주요 기술 관련 중장기적 협업사업 추진 등이다.

광주시는 협약에 따라 오는 5월 실리콘밸리 투자유치 라운드테이블 개최를 시작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이은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과 국내기업 간 비즈니스협업, 유망한 기술 이전 협업 등을 통해 광주경제자유구역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축으로 거듭나는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리콘밸리 비즈니스포럼은 한솔섬유 대표이자 뉴패러다임 인스티튜드(NPI) 대표인 문국현 회장과 실리콘밸리에 기반을 둔 벤처 투자회사 라이징타이드펀드(RTF) 오사마 하사나인(Ossama Hassanein) 회장이 공동으로 만든 비즈니스 국제

포럼이다.

포럼은 국내기업과 실리콘밸리 기업 간 네트워크를 통한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신기술 이전 및 합작투자 유치 등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는 제3회 실리콘밸리비즈니스포럼이 제주국제전자자동차엑스포(5월 4-7일)와 연계해 열리며, 광주에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분야 행사가

진행된다. 또 같은 달 11-12일 실리콘밸리 투자유치 라운드테이블 개최도 예정돼 있다.

문국현 SVBF 공동회장은 "전세계에서 반도체 다음으로 핫한 분야가 배터리 분야로, 누가 먼저 신기술로 배터리 용량을 늘리고 만드는 가에 치열한 물밑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과감하게 미래기술을 도입하는 데 앞장서는 광주시와 실리콘밸리 사이에 상호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사마 하사나인 SVBF 공동회장은 "광주시, 광주경제자유구역청과 협력해 실리콘밸리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광주경제자유구역이 전세계의 혁신과 지속가능 기술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실리콘밸리 비즈니스 포럼이 광주와 실리콘밸리의 가교 역할을 하게되면, 국내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고, 성공의 발판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 광주경제자유구역에서 국내기업과 실리콘밸리 기업이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면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만들어 광주경제자유구역이 제2의 실리콘밸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이 6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실리콘밸리 투자유치 라운드테이블 개최를 위해 실리콘밸리비즈니스포럼(SVBF)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진철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이 시장, 문국현 SVBF 공동회장, 오사마 하사나인(화면 사진) SVBF 공동회장.

전남사랑 전남품에(愛) 주소갯기 대학생·노동자 등 대상 전남도, 주소 이전 장려 캠페인

전남도가 '전남사랑, 전남품에(愛) 주소갯기' 캠페인을 벌인다. 실제 전남에 살면서 아직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대학생,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주소 이전을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저출생·고령화, 청년인구 유출 등으로 인구가 줄고, 도내 18개 시·군이 향후 30년 내 소멸할 위험에 처하는 등 인구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전남도가 내놓은 교육책이다.

전남으로 주소 이전을 원하면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전입신고를 하건, 정부 24 누리집(www.gov.kr)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전남도는 지난 3월 50인 이상 고용 기업, 민간단체, 향우회 등 1200여개소를 대상으로 도내 실제 거주자의 주소 이전을 독려하는 도지사 서한문과 전남 전입 혜택 안내서를 발송했다.

또 공중파방송과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남 인구문제 심각성을 알리고 전입신고 방법을 안내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또 시·군 행정지원담당관을 활용해 전입 홍보 활동 및 찾아가는 전입신고 확대 추진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인구가 줄면 예산이 감소하고 행정조직이 축소돼 사회기반시설 투자가 위축되는 등 지역 경쟁력이 동반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도민 한분 한분의 전남 주소 갯기가 전남 발전에 큰 힘이 된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철도 승강장 안전문 기업 등 잇단 유치

11개 강소기업과 564억 투자협약

전남도는 최근 도내 5개 시·군과 협력해 철도 승강장 안전문, 하천 가동보 등을 생산하는 11개 강소기업과 564억원 규모의 서면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목포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장흥군에서 191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시·군별로 목포 대양산단에 3개 기업이 73억원을 투자한다. (유)신안산업개발이 하천 수문(문비) 및 유입식 가동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장을 증축한다. (주)매중은 31억원을 추가 투자해 생활도자기 생산공장을 증축한다. (주)명진이앤씨는 LED조명기구 및 각종 분전반, 배전반 제조공장을 신설한다.

나주 혁신산단에는 3개 기업이 238억원을 투자해 8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주)디에스강재는 150억원을 투자해 축사, 공장 등 지붕 자재용 PE폼 성형강판 생산공장을 증축한다. (주)대우중전기는 한전 납품과 해외시장을 겨냥해 주상·지상

변·전압기 제조공장을 신축한다. (주)동남은 가스 절연개폐장치 및 개폐기류 제작공장을 증축한다.

광양 옥곡면 신금공단에는 철도 승강장 안전문 생산 강소기업인 (주)SKDHI-TEC이 39억원을 증설 투자해 유럽권 진출 확대의 발판을 마련한다. (주)SKDHI-TEC은 기존 스크린도어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서로 다른 열차가 운행하는 역사와 곡선 승강장 등에 설치할 상하 스크린도어를 생산하고 있다.

광양 국가산단에는 (주)에스에프씨가 조개껍데기에서 추출한 석회를 가공해 각종 공업용 원료로 쓰는 중질탄산칼슘과 특급 생석회 생산공장을 신설한다.

장흥 바이오산단에는 (주)서광이 54억원을 투자해 친환경 재생 소재를 활용한 인공어초와 어망추 등 친환경 해양 어구를 생산, 해양생태계 보호에 앞장선다. (주)엔에스는 70억원을 투자해 미국종합처리장을 건립, 양곡의 생산·유통·판매를 일원화하고 거래처를 다변화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참여 기업 공모

7~16일 신청·접수, 5월중 선정 인건비·사회보험료 70% 지원

광주시는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7일부터 16일까지 '예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은 인큐베이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으로 단계적 전환을 유도하는 모범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의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면 4개월간 신규 고용 근로자의 최저 임금 수준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일부(70% 수준)를 지원받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 기업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거쳐 5월 중 최종 선정해 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사업 공고문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신청과 상담은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살림(062-383-1136)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송권춘 광주시 일자리정책관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기업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지 못한 기업은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에 반드시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호남대 부지 아파트 30층 이하로 계획 변경해야"

참여자치21 촉구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은 6일 호남대학교 쌍촌 캠퍼스 부지에서 건립 추진하는 아파트의 높이를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자치21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용섭 광주시장의 시장 철학을 무시하고 무등산과 주요 지점 조망권, 일조권을 외면하는 결정을 했다"며 "광주시장은 30층 이하 아파트만 허용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34층 높이 3개 동을 포함한 모두 14개 동, 936가구 규모 주택건설 개발행위를 조건부 수용했다. 30층 이하로 건축하는 조건을 걸었지만 '권장 사항'인 점을 고려하면 그 이상 건축이 가능해 이 시장의 소신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자치21은 "시민의 염원, 시장의 철학을 헤아려 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청한다"며 "광주시는 하루 빨리 건물 높이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거리두기로 멀어진 세상, 신문이 이어줍니다

저치고 힘든 일이 많았던 세상입니다. 거리두기로 만나기 어려웠던 사람과 일상 - 신문이 그 세상을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